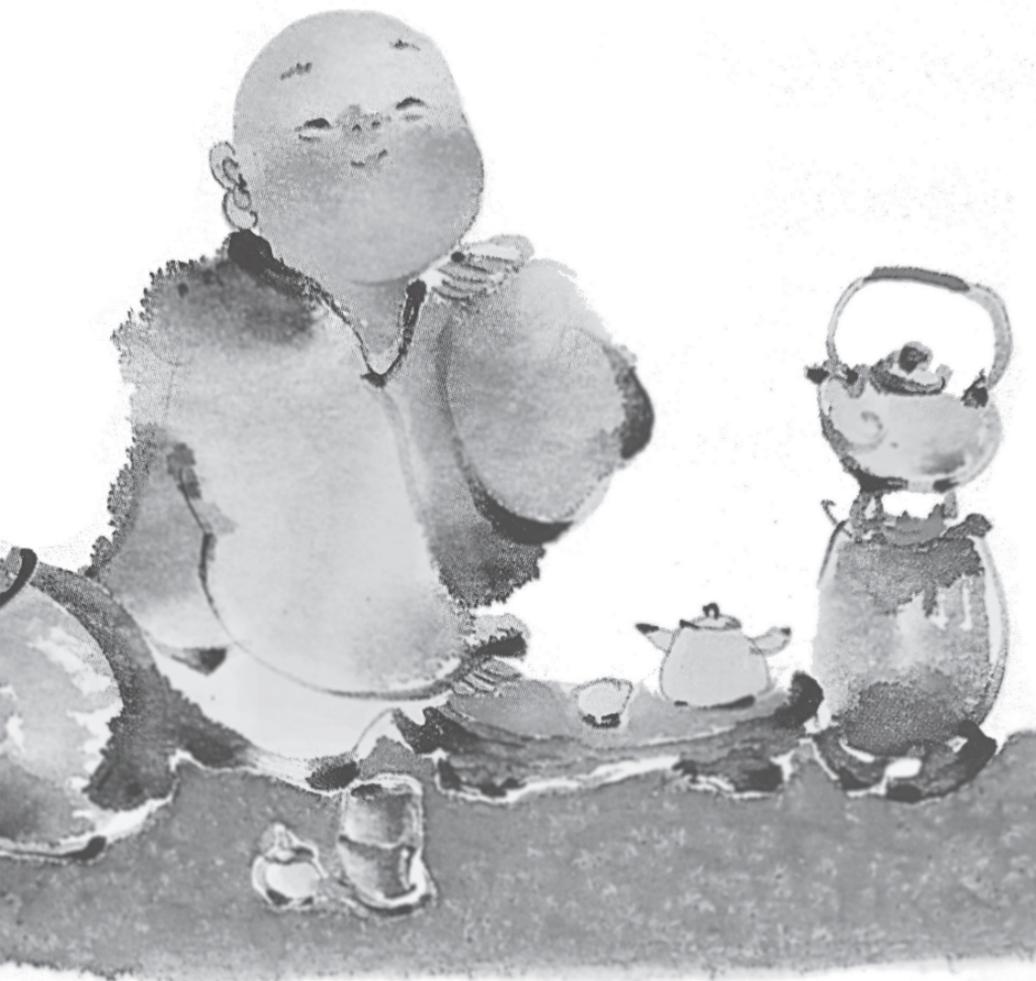


지혜의 말씀

불기 2567년 1월 / 통권 503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법구경 (法句經)

009

더러운 때를 버리지 못하면서 승복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는 승복 입을 자격이 없다
절제와 진실이 없기 때문에

010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계율을 잘 지키며
절제와 진실을 지닌 사람만이
승복을 입기에 어울리는 자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단순호치(丹脣皓齒) / 운성스님

오두막 편지(법정) · 8

너는 네 세상 어디에 있는가

설담장학회 · 12

대광사 1월 법회 및 행사 · 13

설날합동제사

계묘년 정초기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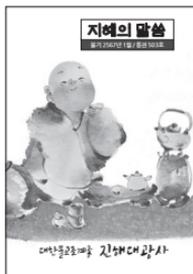
입춘 · 삼재소멸기도(눌삼재-용, 쥐, 원숭이)

성지순례(삼보사찰)

알림마당 · 14

고맙습니다

제 21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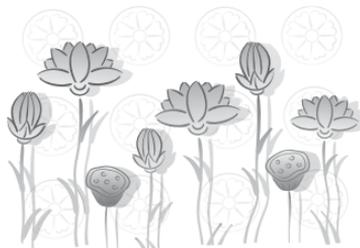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단순호치(丹脣皓齒)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단순호치는 붉은 입술 사이로 살짝 드러난 하얀 이빨을 이르는 말이다. 전국 시대 주나라의 유왕이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 포사에 의해 생겨난 말이다.

그녀는 주나라에 점령된 약소국 '포나라'에서 바쳐진 일종의 전리품이었다. 한눈에 그녀에게 빠진 유왕은 국가 정사를 돌볼 겨를이 없는 이성을 잃은 왕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를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녀는 좀처럼 웃지 않았다.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왕은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웃을 수 있게 할 수 있으?”

“저는 무엇을 봐도 우습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에 비단 찢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습더군요.”

그 후로 나라의 비단이 그녀의 웃음을 위해 다 찢겨 저 나갔다. 이때 비단 찢는 소리에 그녀의 붉은 입술이 살짝 열리며 그 사이로 하얀 이가 눈부시게 드러났다. 이를 ‘단순호치(丹脣皓齒, 빨간 입술 사이의 하얀 이빨)’라 한다.

당시의 비단은 가장 비싼 옷감이었고 국가의 귀중한 재산이었다. 비단은 국가간 무역의 가장 값진 상품이었다. 비단을 무역하는 길을 ‘비단길’이라 했으니 당시 비단이 얼마나 국가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알수 있다.

여색에 빠진 왕은 그녀와 즐거움을 나누는데 골몰하여 더 새로운 향락 놀이를 찾는데 관심을 둘 뿐 다른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다. 자연 국가 경제는 파탄 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 시대엔 여성 지위가 이미 정치를 좌우하는 수위에 올라 있으니 옛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이 다소 어색함이 없지 않지만, 당시는 여성이 나라 일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반드시 나라에 좋지 않은 일 생긴다고 생각했다.



포사로 인해서 주나라는 급속히 국력이 약해져서 끝내 북의 융족 침입을 받아 유왕은 죽게 되고 포사는 다시 전리품으로 융의 왕에게 잡혀가게 된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경국지색(傾國之色: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인)이란 또 다른 사자성어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등 수많은 나라들이 망하는 순간 반듯이 여인이 등장해서 군주의 눈을 흐리게 하여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게 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들의 주변에서 여인들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 또한 적지 않은 오늘이다. 싫어도 매일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한다.

무엇에 눈멀어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지도자를 어리석은 지도자라 한다.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일이 엉망이 되고 개인 일도 그르치게 된다. 앞 사람이 아무리 잘한 일도 헛일이 되게 한다. 하루하루가 포사의 단순호치를 떠올리게 하는 현실이다.

역사가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역사의 아픈 기억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그 잘못을 거울로 하여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의도에서다. 단순호치는 오늘

의 지도자들이 깊게 새겨야 할 역사 교훈이다.

‘옛에 의해 오늘을 판단하여 나아갈 길을 설정해야 한다’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은 국정 운영자들이 늘 새겨야 할 단어다. 어제와 오늘도 하염없이 들려오는 사적 감정으로 시행되는 국정 소식에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최악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이성을 잃은 사랑이어서는 안된다. 이성을 잃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술꾼이 술에 취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는 거와 같다.

이성을 잃은 사람은 당연히 일을 그르치고 남에게 혹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지도자나 권력자의 사랑이 이성적 냉정을 잃게 되면 제 사랑의 감정에 취해 공정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사실이다.

권력자도 권력자의 부인도 개인감정에 치우친 행동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꽃으로 여긴다.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있어 꽃같이 아름다운 존재인 것이다. 다만 개인 감정에 치우친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흙방을 만들어

오두막 편지 中(법정)

“1월호 주지스님 글(사자단상)은 쉬어갑니다.”

올 봄 흙방을 하나 만들었다. 지난해 가을 도자기를 빚는 이당 거사의 호의로 흙벽돌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산골에 얼음이 풀리자 실어왔다. 4월 한 달을 꼬박 방 한칸 만드는 일에 골몰했다. 산 아래 20리 밖에 사는 성실한 일꾼 두 사람과 함께 일을 했다.

이전까지 나뭇광으로 쓰던 자리에다 방을 들였는데, 이번에는 아궁이를 기존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잡았다. 새로 만든 방의 위치도 위치지만 어떤 바람에도 방 하나만은 군불을 지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나는 이곳에 와 살면서 거센 바람 때문에 군불을 지피는 데 너무나 애를 먹어 왔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에 겪어 온 경험과 두뇌 회전이 빠른 일꾼의 솜씨로 이번에 만든 방은 불이 제대로 들인다. 나는 당초부터 예상한 바였지만, 처음 방구들을 놓아본다는 일꾼은 불이 제대로 들일

지 내심 불안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써 만들어 놓은 방에 불이 안 들이며 말짱 헛일이기 때문이다.

방이 완성되어 처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날 우리는 기대 반 불안 반이었다. 그러나 불길이 훤히 소리를 내며 빨아들이는 걸 보고 함께 손벽을 쳤다. 그때 일꾼은 장난말로 불이 잘 들이면 구들장 놓는 ‘쫘’을 하나 써 달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종이쪽지보다도 나는 그의 숨씨를 믿을 수 있게 됐다. 방이 고루 따뜻해졌으니 성공한 것이다.

개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은 불이 너무 잘 들며, 굴뚝으로 열기가 그대로 빠져나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굴뚝 위에 바닥 기왓장을 하나 얹어 놓았다. 방 안의 보온을 위해 필요한 장치다.

이 방은 시멘트를 전혀 쓰지 않고 구들장을 비롯해 모두 돌과 찰흙으로만 되었다. 구들장 위에 흙을 한 자쯤 덮었기 때문에 균불을 지핀 지 네댓 시간이 지나야 방바닥이 뜨뜻해 온다. 이렇게 되면 사나흘 동안은 불을 더 지피지 않아도 방안이 훈훈하다. 특히 이런 방은 추운 겨울철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구들장 위에 흙을 두텁게 깔지 않으면, 균불을 지피자마자 이내 더워진다. 아랫목은 프라이팬처럼 뜨거워 발을 디딜수조차 없다. 아랫목 장판이 까맣게 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안은 초



저녁만 반짝 더워졌다가 새벽녘이면 식어 버린다. 한때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이내 냉랭해지는 세상 인심처럼. 우리 모두가 어렵게 살던 지난날 나그네길에서 하룻밤 묵어 가던 여인숙 방들이 대부분 그랬었다.

며칠 전 새로 만든 흙방에 도배를 했다. 찰흙으로만 다지고 발랐기 때문에 벽과 바닥사이에 틈이 생겨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왔다. 초배를 하기 전에 질긴 닥종이를 오려 두세겹씩 틈을 바른 후에 덧발랐더니 연기가 잡혔다. 연기와 물은 조금만 틈이 있어도 새어나온다.

벽과 천장은 티가 섞인 한지로 바르고 바닥은 장판으로 발랐다. 장판 아홉장 깔이 방이니 한 평 반쯤 될까. 빈 방에 방석 한 장 깔고 앉아 있으니 새로 중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거지적거리지는 것 없어 흥가분해서 좋다.

장판방이지만 시멘트를 쓰지 않고 흙으로만 발랐기 때문에 바닥이 매끄럽지 않고 우툴두툴하다. 그런데 이 우툴두툴한 질감이 나는 너무 좋다. 요즘은 어떤 방이든지 한결같이 매끄럽고 평탄하기만 한데, 오랜만에 이런 질박하고 수수한 방바닥을 대하니 마음이 참으로 느긋해진다. 요즘처럼 닳아져 가는 세상에서 ‘질박함’이나 ‘수수함’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의 우리들 삶이 질박과 수수함과 너무나 거리가 먼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음식만 하더라도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기름지고 걸쭉하고 느끼한 것만 좋아하는 세태이므로, 담백하고 깔끔한 음식을 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음식 문화 속에서 살아가노라면 학처럼 곱게 늙기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몸에 걸치는 옷도 질박하고 수수한 모습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요란한 색상과 과장된 디자인,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몸짓도 살갓도 그 위에 바르는 화장도 그런 의상에 걸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주거형태는 어떤가. 거의 규격화 된 주거공간으로 인해 그 형태나 마찬가지로 삶의 내용도 두 부모처럼 개성을 잃고 획일화 되어 가고 있다.

질박하고 수수한 것을 낡아빠진 옛것으로 물리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의 미덕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미끈하고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화끈함이, 물건이건 인간관계이건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우툴두툴한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있으면 창밖으로 지나가는 미친 바람 소리도 한결 부드럽게 들린다. 이 방에 나는 방석 한 장과 등잔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안에서 나는 잔잔한 삶의 여백을 음미해 보고 싶다.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성지순례(삼보사찰)

- 일 시 : 2월 11일
- 기타사항 추후 공지



◎ 대광사 1월 법회 및 행사 ◎

- ◇ 1월 6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1월 22일 : 설날합동제사 오전 7시 설법전
 - ◇ 1월 24일 : 정초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 1월 28일 : 정초기도 회향 오전 10시 설법전
 - ◇ 1월 29일 : 불교대학20기 졸업식 오전 10시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설날합동제사

- 일 시 : 1월 22일 오전 7시 설법전
- 동참금 : 영가 1위당 2만원

계묘년 정초기도 안내

- 일시 : 1월 24일~1월 28일 오전 10시 설법전
- 동참금 : 가족축원 5만원

입춘·삼재소멸기도(눌삼재-용, 쥐, 원숭이)

- 일 시 : 2월 2일~2월 4일 오전 10시 30분
- 동참금 : 입춘(3만원) / 삼재소멸(1인당 2만원)



대광후원회

(2022.11.18.~2022.12.18)

조인우 10,000	변창인 20,000	오현철 20,000	배동환변호사 50,000
조우현 10,000	이봉희 40,000	강성진 10,000	원광한의원 100,000
황두관 10,000	정진이 10,000	박성봉 50,000	쥬카텍홀딩스 300,000
김경남 20,000	박미애 10,000	박수현 50,000	
홍승운 20,000	이인숙 20,000	조한분 50,000	
송성수 10,000	배수진 30,000	정대식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0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

후원회 10만원 정창운 3만원

♥ 지혜의말씀 후원

송종화 1만원 양재봉 1만원

♥ 설담장학회

대광사(주지스님) 10만원 변지오 1만원 김순남 1만원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기제사비가
영가 1위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가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예: 영가 2위이면 40+5=45만원)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佛紀 2567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21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3년 2월 28일~3월 29일	2023. 4. 4(화) ~ 11. 29(수) (1년 과정 - 2학기제)
수 계 일	2023년 4월 2일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 2023년 2월 말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신도증발급, 수계비포함)
불교대학1학기 200,000원 (교재비, 범복, 성지순례비 포함)
불교대학2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포함)
- ▶ 신청준비물 : 증명사진 1장, 신청서 작성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총무소 055)545-9595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